

**특우 컬럼**

그거면 됐어

교회마다 주일 전에 주보를 만든다. 주일에 성도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다. 우리 교회의 신문은 한 주 전의 설교가 요약되어 나가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순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 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제목과 성경 본문을 내는 것이 상례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주보를 전달하고 있는 전도사가 담임목사님에게 전화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제목과 성경 본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고 대답했다. 전도사는 설교 제목이 뭔가 끝맺음이 없다고 여겼는지 “그리고요?” 하며 되물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라고 답했다.

주일이 되어 주보를 받아든 목사님은 참으로 황당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뭘지 무엇이 더 필요해’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잘못 나온 주보를 어찌하랴.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목사님은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목자가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배고프면 먹일 것이고,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실 것이니 말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아멘, 아멘' 했다.
 맞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거면 됐다. 다윗도 여호와께 나
 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됐다고 고백했다.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
 며 쉼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주
 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다”(시23:1~6).

또한 그는 선한 목자이신지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분이니 어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고백해보자.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것이면 됐습니다.”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시 79:13). 아멘!

문제의 열쇠는 대화 속에 있다

11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통하여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신 대목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가 없는 백성은 국가가 있는 게
만큼도 대접받지 못한다.

지구를 150바퀴 이상 다니시며 절감하신 것이 국가의 중요성이라 강조하신 것이다. 국가의 존재 여부를 넘어 국력의 크기 역시 중요하다. ‘해외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당장 여권을 내밀고 입국 수속을 할 때부터 여권 파워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레벨에 오른 후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만, 줄줄이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참으로 국가적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단기 방문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고, 일정 기준만 갖추면 자동출입국서비스로 인터뷰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다. 둘째는 대결의 구도에서 협력의 구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안보가 없는 경제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국력을 키워 감히 넘볼 수 없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건드려서 분노를 키우는 대결의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하고 협

장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경제는 무역을 통해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가 11차에 걸쳐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제발 우리 후손들부터는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자유를 구가하며 더욱 성장 발전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북한 땅에 들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벽천 꿈을 그리기 때문이다.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남과 북의 의미조차 몰랐다. 그나마 안다는 사람은 6·25전쟁을 겪은 나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위험한 지역이라는 인상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위상이 바뀌었다. 각 나라 공항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또한 한때 '강남스타일'이란 노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는 아르헨티나(Argentina) 도심에서 버스정류장에 있던 젊은이들이 차를 타고 지나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집단으로 말춤을 추며 인사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 있다. 예전에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대사관에 줄을 서며 기다려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비자가 잘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지

력하고 수시로 교류하는 노력을 통해 평화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번 주일에도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전단과 북한이 그에 응수하여 오물 풍선이 날아오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문제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정말 복잡하다. 남북이 분단되어 오랜 세월 대치하고 있고, 주변으로는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한반도에 긴장이 증가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여 해외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에 누가 투자하려 할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무역을 통해 성

일제 식민지의 압제 시절이 36년이였다. 그런데 남북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고 1953년 휴전한 이후 서로 단절된 시간은 무려 71년이다. 이제 그만 대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서로 감정을 건드리는 언사나 행동은 남북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쟁의 와중에도 물밑으로 는 평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상례요, 지혜다. 문제의 열쇠는 대화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동참하자! 대한민국을 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은택 목사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

8월 26일(월) ~ 10월 4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삿7:1~18)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자주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저의 답은 똑같습니다.
“평화통일이 이뤄지는 그 날까지 나는 기도성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유는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고 많은 교단 중에서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에 이 막중한 사명, 엄청난 과업을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중심교단에 이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맡기셨을까요? 그 답은 사사기 7장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 미디안 족속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곡물과 각종 과실을 침탈해갔고, 양과 소와 나귀 등 소유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급기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하여 굴을 파거나 산성을 쌓아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를 주목하셨던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이런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으니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삿6:13~15)라고 고백할 정도로 매우 겁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군대를 조직하라 하십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많다 하시며,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은 제외시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삿7:1~8). 하나님은 이도 많다 하시며 감군명령을 내리시고, 결국 서서 물을 손으로 흘리는 300명만을 차출, 그들을 전쟁에 투입시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왜 작은 무리, 곧 300명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삿7:2).
사람의 힘으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택하신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어른이 나간 것이 아니라 어린 다윗이 나가 싸우게 하신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상대하셨다는 증거였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뭣 하러 300명을 세우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뤄집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조처해질 대로 조처하진, 말도 어눌한 모세를 통해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그것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였고, 그것이 바로 기드온처럼 약한 우리 예수중심교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평화통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평화통일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단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성냥개비같이 작은 역할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활활 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냥개비가 자신의 역할, 곧 불을 붙이지 않으면, 기름을 쏟아부은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집회에 갔을 때입니다. 집회를 주관하는 카니발 목사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카니발은 당연히 부에노스아이레스 체육관 정도는 자기 성도들만으로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회 첫날 푸경을 열어보니 체육관 바닥조차 차지 않았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

다. 당한 이현숙 선교사가 밤새 통곡을 하는 통에 저도 함께 애꿎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

하사 마지막 날에는 집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성령을 부어 주시기로 예정하셨지만, 성냥개비 같은 도구가 없었기에 역사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장차 맞게 될 전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있었 다 는 것입니다 (삿7:3). 수효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민족에 대한 소명으로 굳게 무장되었기에 두려움은 물론이요, 불평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소수일망정 확고한 목표 아래 한 마음 한뜻으로 강력하게 결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10월 9일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해 우리가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결집되어야 합니다. 강 건너 불 보듯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불평하며 일을 방해하는 훼방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40일 작정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기도하고, 작은 힘일망정 보태어 이 성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분단된 40년 동안 계속 기도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냥개비의 작은 불씨였던 것입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도록 역사하

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겨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까닭은, 그 통일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국제정세나 북한의 자멸에 의한 외형적인 요건이 평화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전쟁에 들고 나간 것은 대단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나갔고(삿7:16),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셨을 뿐입니다(삿7:19). 우리의 통일은 핵폭탄이 있어야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만반의 준비는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 나라의 통일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이뤄집니다. 우리 기도가 항아리의 아구까지 차면 하나님이 이루도록 지시하실 것입니다.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기쁨과 환희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 기도

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중심교단을 위하여!’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함께 다시 평화통일 기도성회 영상을 봅시다. 그간 우리가 해왔던 기도성회 영상을 보며 우리 열싸안고 기쁨을 나눕시다. 그리고 대동강가에서, 김일성 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념성회’를 개최합시다.

30여 전에 ‘사론의 꽃 예수여, 아름답게 피소서. 한라산에 꽃 피우고 백두산에 열매 맺어 천지에서 세례를 베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오 주여 이루소서 우리의 뜻을!’ 이렇게 작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할 말을 잊습니다.

우리,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명작을 남깁시다. 하나님이 보시고, ‘평화통일’이라는 카드를 꺼내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만족 지연

“끈기 있고 쫓대가 있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 매일 배운다면,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가까이 ‘만족 지연’을 추구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찰리 멩거는 항상 만족 지연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내의 중요성, 그리고 훌륭한 기회가 왔을 때 그에 맞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그런 훌륭한 기회들은 자주 오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단호하게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멩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당장 빨리 돈을 벌려고 하지만, 최고의 투자자들은 향후 먼 훗날 얻을 수 있는 훨씬 많은 이익을 위해 만족을 지연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리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 만족 지연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기투자자들은 가까이 만족을 지연하는 경영진을 찾습니다. 이런 경영진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들은 회사의 장기 존속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래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라면 단기적인 이익은 가까이 포기합니다. 반면 한 기업이 신규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선행비용이 필요한데, 이런 높은 선행비용은 현재의

이익을 압박하고 이는 다시 근시안적인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초기에 시장점유율이나 수익을 늘리기 전, 시장존재감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광고나 프로모션이 필요하지요.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영진이 갖지 못한 상당한 인내가 요구됩니다. 이들은 미래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현재 더 많이 지출(투자)하기보다는, 현재의 이익을 지지하기 위해 비용을 줄입니다. 이로인해 이들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훼손합니다.

버핏과 멩거는 ‘만족 지연’ 실천의 대가들입니다. 문제는 주주로서 우리가 버핏과 멩거가 실천한 것과 같은 수준의 만족 지연을 가까이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시간 지평에는 자신의 핵심 투자 논지에 가까이, 그리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과정도 동반되어야 하지요. 투자자는 자신의 최초 투자 논지가 옳은지 부단히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적극적 인내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오래 참는 자가 아니면 절대 열매를 딸 수 없기에 꼭 그 열매가 영글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놓고 못 건디고 떠나버리면 결국 오래 참은 자가 다 쭉게 되지요(약5:7~8).

이미경 권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믿음의 동반자는 ‘행함’입니다

며칠 전, ‘메인스타디움(C.S.LEE)’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1992년 6월 7일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 열린 ‘땡깍에 수전도집회’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그날의 날씨가 화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실상은 집회 전날부터 당일 오전까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비가 오는데도 집회를 강행할 거냐’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 목사님은 집회 시작 전까지 사황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려 단에 오르시자, 하늘의 비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내리비치는 기적을 체험한 분들은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인산인해를 이룬 경기장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을 9살의 저는 몰랐겠지요. 이날의 집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통하고 금식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전도하였을지들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한 여자 집사님께서 45인승 버스를 채우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학교 선후배들에게 전도하였더니, 기도한 대로 버스를 꽉 채워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사뿐이었다는 간증을 신문으로 읽었습니다. 꼭 해내야 한다는 생각 위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끝내 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고백하시는 집사님의 간증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총회장 목사님께서 서 울시청광장에서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개최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40일 작정기도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단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평화통일의 도구로 사용되고 계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전도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메인스타디움 10만 명 집회 및 셀 수 없는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우리 교단의 저력을 잊지 말고,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봅시다! 분명 이번 기도성회도 차고 넘쳐 모두가 한마음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장관이 눈 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김진실 사모

국가 위기에 봉화불을 당기자

평화의 청아한 중소리 올리누나
평화의 중소리 올리누나
새벽 교회당 중소리인양 올리누나

삼천리 금수강산에
중달새 봄노래 아지랑이 춤추며
목련꽃 피어나듯 올리누나 올리누나

평화의 중소리 남북에 올리누나
세계에 올리누나 평화의 중소리
만민이 박수치며 천사도 박수치누나

날짐승 우아한 군무
오케스트라 창공을 빛내고
평화의 중소리 노래하네

전쟁의 어두움 사라졌다 손뼉 치는 아낙네
딸 아들 품에 안고 단잠을 이루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늘과 바다, 산야가 주인을 부르니
남정네 아낙네 춤추며 주님 은혜 찬송함이
역사적 명작 이뤘네
평화의 비둘기가 날았다네
朋友

:: 소망의 언덕 ::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다가 시편 132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 특별한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윗 왕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시편 132편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그토록 기뻐하셨기에 다윗의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것일까요? 저의 넘치는 상상력으로 추측컨대 다음의 본문 말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와 더불어 나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시132:3-5)

다윗은 목적인 바를 이루기 전까지 절대로 집에 들어가 편하게 잠을 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목적인 바가 무엇이었

습니까? 하나님의 성막(법궤)을 찾가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전역을 살사리 찾아 헤매는 젊은 다윗 왕을 상상해보십시오. 마침내 다윗은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으로 전능자의 성막을 찾아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92년 메인스타디움집회 때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의지하며 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전도단 본부에서 지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가짐에서 이미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그때 그 각오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봅니다.

12차 평화통일 집회를 위해 40일 작정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정기도를 위한 작정기도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보면 어떨까요? 그냥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한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기도로 승리할 때,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인 평화통일이 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현승 목사

:: 한국 교회사 ::

:: 귀를 기울이세요 ::

한국 최초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1858~1902)는 북 감리회 선교사로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입국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께서 이 백성을 얻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17년간 한국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다가 순교하였다.

그는 1884년 뉴저지 드류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엘라 닷지와 결혼하고 한국선교의 길로 나섰다. 그가 한국 선교사로 온 동기는 3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는 신학교 재학 시절 전국신학교 연합집회에서 한국선교의 사명을 깨달았고, 둘째는 그리피스가 쓴 <은둔의 나라 조선>이란 책을 읽고 결심했고, 셋째는 미국 잡지에 실린 이수정의 기사를 보고 한국선교의 결심을 굳혔다.

아펜젤러가 인천에 도착할 때 갑신정변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웠고 임신한 여성이 생활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언더우드만 서울로 향했고, 아펜젤러는 포크의 조언을 받아들여 집은 그대로 두고 부인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6월 20일 재입국하였다. 입국 후 아펜젤러 부인은 1885년 11월 9일에 딸 엘리스를 서울에서 순산했다. 이 아기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기로 알려졌다. 한국 선교회 창립부터 총무로 봉사하며 서울 주재 외국인 연합교회 목사로 시무했다. 처음에 그는 교육 사역을 시작하여 배재학당, 정동교회를 차례로 설립하는 등 학원 선교 및 목회에 열중하였다.

1985년 8월 3일, 정동 사택에서 이경리와 고영필, 두 학생과 함께 학교를 시작했고, 1886년 6월 8일, 배재학당(고종이 지어준 이름,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란 한국 최초의 신학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14년간 교장으로 헌신했다.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주시경, 김소월, 지청천 등 독립운동

가와 목회자를 육성한 것이다.

그리고 1887년 10월, 4명의 성도와 함께 정동제일교회를 시작하였고, 10년 만에 붉은 벽돌의 벨엘 예배당을 건립하였다. 또한 지역 전도 활동을 전개하여 1891년에는 인천지역 성도들을 위해 인천 중구 내동에 내리교회와 제물포교회를 설립하였다.

1888년 1월에 배재학당의 교사로 입국한 올링거 목사의 도움으로 배재학당 내에 한국 최초로 삼문 출판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한, 중, 영 3개 국어로 인쇄할 수 있는 출판사였다.

또한 아펜젤러는 성서번역 사업에도 헌신하여 누가복음을 비롯하여 스크랜튼, 언더우드 등과 함께 여러 신약성서를 출판하였다. 1890년에는 종로서점을 설치하고, 대한성교서회(현 대한기독교서회)의 회장직을 맡았다. 그는 단지 선교 및 교육 활동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과 주체의식의 회복, 그리고 근대화를 위한 사역에도 최선을 다하였고, 기독교 소책자 및 그리스도 신문 발간에 참여하였으며 독립운동도 적극 지원하여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일에 협력하였다.

1902년 6월 11일, 아펜젤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도중 구마가와마루호(400톤 규모의 선박)와 인천으로 가는 기소가와마루호가 충남 서천 어청도 앞 바다에서 충돌하여 침몰하면서 순교했다. 사고 당시 그는 1층 1등실에 타고 있어 탈출이 가능하였으나 지하 3층에 있던 정신여고 학생과 조한규를 구하려고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나오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다른 사람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아펜젤러는 그의 나이 44세에 순교했다.

그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양화진에 비문만 세워졌다. 그의 순교를 기념하여 서천과 군산에 아펜젤러 기념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서천 아펜젤러 기념관은 아펜젤러가 탄 배가 침몰한 어청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가 서천 지방이라서 여기에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펜젤러는 여성 및 가난한 자를 사랑했다. 그의 일화로서 콜레라 유행 시절, 죽어가는 여자아이를 집에 들여 죽을 때까지 살피고 장례를 치러준 것이 기록에 남아있다.

그의 후손으로 아펜젤러의 아들 내외 및 딸도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후 양화진 묘역 부친의 묘소 옆에 안장되어 있다. 딸 엘리스 아펜젤러는 미국에서 공부 후 이화여대 학장으로 재직했고, 1950년 이화여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순교하였고, 아들 헨리 D. 아펜젤러는 20년간 배재학당 교장을 역임했다.

아펜젤러의 묘비에는 그가 처음 제물포에 도착하여 드린 기도문이 적혀 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얻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아펜젤러는 한 알의 밀알에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다. 그를 통해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한국의 모든 지방을 방문하여, 북쪽의 호랑이 사냥꾼으로부터 남쪽의 벼 농사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설교하고 싶다.”

아펜젤레의 꿈이었다.

김종춘 목사

kkd9191@hanmail.net

:: 성경에서 배운다 ::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

MZ세대 젊은이들에게 ‘남북통일에 찬성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70%가 넘는 숫자가 비용 문제를 들어 통일에 반대했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북한과 통일까지 하면 엄청난 비용의 세금이 남한에서 지출될 거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독일이 통일 이후, 한동안 경제회복에 안간힘을 써야 했던 과정을 지켜봤고, 당장 개개인에 부과될 세금이 늘어나는 걱정에서 이런 답변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었지요.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가 북한을 흡수해야 할까요? 일본? 중국? 러시아? 당연히 대한민

국입니다. 굳이 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다른 나라에 흡수될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대치 상태일 때보다 엄청난 외교적 압박을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해서 어느 나라가 북한과 연합해야 할까요?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자국내 복음의 전파가 자유롭지 않은 중국과 복음의 뿌리가 약한 일본보다 우리 대한민국과 평화통일이 될 경우, 제2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더욱 악한 마귀는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비용으로, 정치로, 논리로 통일을 막고, 분쟁과

마음이 이 땅에 지속되길,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기 바랄 것입니다. 그 악한 마귀의 영적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이런 영의 세계를 알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분열되었던 민족적, 정치적, 신앙적 갈등과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노라 선포해야 합니다. 이론과 교파를 뛰어넘어야 하며, 세대를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모두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에 참여하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하인명 집사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

19세기 후반 프랑스에는 닭 콜레라가 창궐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 닭들은 심각한 병을 앓다가 급성 질환으로 죽게 되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닭들의 사망률은 전체 닭의 10%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퇴르는 과거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되어 부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경험을 살려 닭 콜레라균에 의한 실험을 시작하게 된다. 처음에는 닭 콜레라의 원인균을 배양해 건강한 닭에게 주입시켰더니 닭들은 모두 죽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몇 주일 방치된 닭 콜레라균을 건강한 닭에 주입하였더니 닭들은 살아나고 죽지 않았다. 이후 더 강한 균을 주사해도 닭은 죽지 않았다. 그 뒤로 파스퇴르는 닭 콜레라균의 병원성을 약화시키고 닭 콜레라균의 예방법을 제대로 알아냈다. 이에 파스퇴르를 질투한 한 과학자는 그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그를 깎아내렸다. 이에 파스퇴르는 말했다. “인생에 있어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우물을 파지 않았더라면 백신 예방법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우연 같은 필연은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 다’는 파스퇴르의 말처럼, 예수중심교회에서는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11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10월 9일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준비하고 있다. 각 기도처와 교육관에서는 매일 저녁 작정 기도가 이루어지고, 각 부서에서는 그날 부를 찬양과 위식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이는 총회장 목사님이 늘상 외치시는 ‘평화통일’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예수중심교단이 앞장서 북한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완벽한 준비인 것이다. 낚시꾼이 한 마리의 대어를 위해 하루종일 낚시대를 두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회는 준비한 자의 몫이다! 우리 평화통일 기도성회로 평화통일을 준비하자!

송현혜 생도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개강

9월 24일(화) 오후 8시

유투브 생방송(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